

■ '제이유 그룹 의혹' 눈덩이

정·관계 전방위 로비 포착

핵심 연결고리 한 모씨 선물 리스트 확보

현지 경찰서장의 구속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설 등으로 다시 촉발된 제이유그룹의 김·경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진모 부장검사)는 제이유그룹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 지 8개월만인 23일 제이유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채경 혐의(알선수재)로 현지 경찰서장 정모(43) 총경을 구속하면서 본격적인 로비 의혹 파헤치기에 나섰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로비설의 핵심 연결고리는 제이유네트워크 고문을 지냈던 한모(45)씨.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친구 사이인 제이유네트워크 전 대표이사 정모씨의 도움으로 제이유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투자받아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세우면서 주수도(50) 회장과 인연을 맺었다.

한씨는 특유의 '마당발' 인맥을 활용해 경찰 등을 상대로 제이유그룹의 로비스트로 활약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한씨는 방배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위원 등 지역사회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방배서와 서초서 경찰 간부들과 안면을 뒀고 이를 제이유그룹의 로비에 활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씨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총경과 박모(50) 치안감 모두 방배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검찰이 지난 9월 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찾아낸 명절 선물 리스트에는 경찰과 검찰, 정·관계 공직자 수십여명의 이름이 올라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활동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이재순(58)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모친 등 가족 4명을 소환해 이들이 제이유 사업자로 가입해 총 12여억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10여억원의 후원수당을 받는 과정에서 수당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씨가 주 회장의 지시로 매일 5가지 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해놓고 회원의 신분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수당 지급대상과 금액을 임의로 변경한 흔적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로비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검찰은 이 비서관의 가족을 조사키로 했으나 이 비서관 본인과 박 치안감 등을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첫 행사처벌

북한 개성공단 1호 제품인 '개성반비'를 생산 중인 ㈜소노코쿠진웨어와 이 회사의 전신인 리빙아트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 기업 관계자가 불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소노코 검역할

회장과 소노코의 전신인 리빙아트 강만수 회장을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과 강 회장은 2004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은 남북협력기금 30억원 가운데 3억원을 자신들과 리빙아트 직원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양호 前국장 영장 재청구키로

검찰, '론스타' 수사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횡령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7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 전 국장이 2003년 말 당시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면서 하중선 변호사(구속·현 현 대해상 화재보험 대표)로부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여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추가해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2003년 6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월과 12월 론스타측으로부터 홍콩 소재 은행의 계좌로 42만달러, 미

국 소재 은행 계좌로 63만달러를 각각 송금받은 등 모두 10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 변 전 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하 변호사 등 사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이 1차 영장을 기각했을 때 사유로 들었던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매각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던 보고펀드에 외환은행이 400억원의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약속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3일 변 전 국장에게 업무상 배임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신임 차관 프로필

靑 근무 경력 '예산전문가'

김영룡 국방 차관



재정경제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대인관계와 인맥이 두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군 이후 13번째 문민차관이다. 재정부 세계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2004년 11월 윤광웅 전 국방장관이 기용,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혁신기획본부장을 맡았다. 예산 전문가답게 '혁신적인 사고'로 국방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에 기여했으며 원만한 대(對)국회 관계 설정에 실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부인 박영희(53)씨와 2남.

▲화순(56) ▲광주고 ▲행시 15회 ▲재정경제원 조세정책과장 ▲대통령 산업통신비서관 ▲재정경제부 세계실장 ▲국방부 혁신기획본부장

건설계획 주도 '주택통'

이춘희 건교 차관



건교부 내에서 주택도시 업무를 두루거친 '주택통'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제일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1 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2002년 주택국장시절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등 2002~2012년 주택 500만가구 건설계획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3년 신형정수도추진지원단장을 맡아 행정수도 이전에 관여하면서 행정도시 건설의 최선봉에 섰었다. 부인 서명숙(51)씨와의 사이에 1남2녀.

▲전북 고창(51) ▲광주이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건설경제국장 ▲대통령 건설교통 비서관 ▲주택도시국장 ▲행정도시 건설청장

현장과 시각

빚장 걸기 시작한 중국



이종태

경제부 차장

중국은 최근 광석류를 비롯해 목재·금속류 등에 대해 가공 무역을 금지하는 품목리스트를 자그마치 804개나 발표해 우리를 놀라게 했다.

리스트를 보면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품·음료수·광산물 등 376개, 목재와 그 제품 256개, 철강·동·니켈·알루미늄 등과 그 제품 98개에 달한다. 또 약품류는 26개, 가공류는 14개 제품이 들어있다.

물론 이들 품목의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관세나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등 세제혜택이 따르는 가공 무역을 위한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이어서 관련업체들은 뜬금없는 비용 부담 때문에 대중국 무역을

재고해야 하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또 중국은 EU(유럽연합)에 이어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등 환경규제지침을 조만간 발동, '빚장'을 더욱 든든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올 1월부터 10월까지 19개국에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신규 수입규제조치를 당한 113건 가운데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련의 조치는 '중국 앞으로'를 외쳐 온 우리에게 호흡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내의 분위기도. 중국은 요즘 '외국자본의 과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경제 민족주의'를 골상 들먹인다.

'환황해권 경제' 운운하며 '이웃집 마실 가는 것'처럼 쉽게만 여겼던 중국시장은 이처럼 우리에게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인 위치에서나, 시장규모 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인 중국을 외면할 수는 없다.

중국 진출기업은 새로운 전략으로 무장, '빚장'을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세무·환경·노무관리 분야에서 중국당국의 규제강화로 각종 비용이 상승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중국 투자전략을 '비용절감형'보다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시장추구형'으로 바뀌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철저한 현지화 ▲중국 중앙·지방정부의 정책방향 숙지 ▲새롭게 부상하는 중산층 등 적절한 대상 고객층 설정 ▲특정지역에 특화된 사업 계획과 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jtee@kwangju.co.kr

www.fila.co.kr

FILA

THANK YOU FESTIVAL

30 ~ 20%

Sale

11/24(FRI) ~ 12/10(SUN) 일부품목제외

▶ 자세한 사항은 필라 홈페이지(www.fila.co.kr)를 참조 하세요.

사이월드 베이 필라 북채보서로